

## 소개의 글

“내가 무엇인가 만드는 이유 중 일부(사실 그 이유의 상당 부분)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 다시 말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Ken Eastman은 1960년에 영국 허트퍼드셔에서 태어났으며 Edinburgh College of Art(1979-83)와 Royal College of Art, London(1984-87)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전시회를 가졌으며 1995년 이탈리아의 ‘Premio Faenza’, 2001년 한국에서 열린 제1회 세계 도자기 엑스포 2001에서 ‘Gold Medal’, 스페인 마니세스에서 열린 제5회 Biennale International De Ceramica에서 ‘President De la Generalitat Valencia’ 등 도자기 분야에서 많은 권위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1998-1999년에는 Arts Foundation Fellowship in Ceramics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일본의 The Shigaraki Ceramic Cultural Park, 미국 휴스턴의 The Museum of Fine Arts, 캐나다의 Musee des Arts Decoratifs de Montreal, 호주의 The Powerhouse Museum Sydney,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Museum Boijmans van Beuningen, 독일 스투트가르트 Landesmuseum, 스페인 발렌시아의 Museu de Ceramica de Manises, 런던의 Victoria & Albert Museum 등 많은 공공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든 작품의 핵심은 용기에 대한 생각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는 기능 위주의 작품을 만든 적이 없지만 용기를 주제로 삼아 의미를 전달하고 표현합니다. 도자기 재료를 매체로 해서 형태를 만들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모양과 구조를 다룰 수 있으며 색조와 색상을 탐색합니다. Alison Britton은 그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astman이 만든 항아리 형태의 작품은 기능을 전혀 방해하지 않으면서 더 강한 추상을 향한 꾸준한 노정을 보여왔으며 형태와 표면 모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자기로서 특별할 수 있습니다. 몸체와 의상, 즉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각상과 회화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화는 Eastman에게 언제나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목표 대상물의 수직으로 된 벽에 서정시를 표현합니다. 화필로 만들어내는 몸짓은 유동적이고 육감적이며 색깔은 풍부하고 평안합니다.”

자신의 작업실에서 일하는 것 이외에도 영국 전역의 많은 대학에서 강의와 교습을 맡아 진행했으며 현재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Glasgow School of Art에서 연구 강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Barrett-Marsden Gallery는 2004년에 그의 예술 작품에 대한 모노그래피인 ‘Ken Eastman, Behind the Gates of Clay’를 출판했습니다. Jane McCabe가 분석 에세이를 쓴 이 책은 Eastman의 작품과 그 예술가의 도자기 제작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Eastman은 2003년에 International Academy of Ceramics 회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Eastman은 시각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형태를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대 도자기의 새로운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